



금속노조 금호타이어지회등 금호타이어 5개 노조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광주 광산구 소촌동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연구동 2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담회를 열고 1공장 재가동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

금호타이어 노조 “500명 이상 투입, 광주1공장 재가동하라”

1공장 9월 재가동... 하루 1만본까지 생산 전망
 산업은행 신공장 대출 등 건설비용 마련 협조
 화물·미화 등 하청업체 일감 끊겨 생계난 호소

금호타이어 노조가 광주공장 대형화재 발생 한달이 지난 18일 노동자 고용 안정을 위해 1공장 재가동을 촉구하고 나섰다. 금속노조 금호타이어지회 등 금호타이어 5개 노조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광주 광산구 소촌동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연구동 2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담회를 열고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1공장을 조속히 가동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공장 화재 이후 한달이 지났지만 2500명의 노동자는 생계 벼랑 끝에 서 있다”고 밝혔다. 또 “최대주주 더블스타와 함께 2대주주이자 주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신공장 건설을 위한 비용마련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담담회를 통해 ▲광주공장 빛그린산단 이전 확정 ▲정상화 로드맵을

위한 노사간 논의 ▲노동자 고용 안전 ▲산업은행 건설비용 마련 협조 등을 요구했다. 특히 노조는 올해 9월쯤 불에 탄 2공장을 제외한 1공장은 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이들은 1공장이 내년 초에는 일일 4000본, 이후에는 하루 1만본(연 350만본)까지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다. 1만본 생산시 기존 광주공장 소속 노동자 1800여명 중 500명 이상은 투입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고무를 제작하는 주요 공정인 ‘정련’ 설비가 위치한 2공장이 모두 불에 탄데다 1공장에 일부 제작 설비만 갖춰져 있어 1공장에서 고무 자체 생산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 노조는 1공장 내 고무 생산과 관련해

“고무 수급을 위해 금호타이어 곡성공장이나 하남산단 내 고무업체, 혹은 경쟁사에서 가져와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노조는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광주공장 ‘순환 근무’가 유일한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해외·국내 타 공장 파견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곡성 공장 내 정련·출하 공정에 인원이 긴급 필요해 광주공장 노동자 39명만 파견된 상태다. 노조는 “국내 곡성·평택 공장 가동률이 100%이상이기 때문에 대규모 파견이 어렵다. 미국 조지아 공장이 있지만 트럼프 정부 하에서는 많어도 2~3명, 많은 인원을 보낼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광주공장에서 3~6개월씩 순환하면서 근무하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내 화물·청소·경비 용역 업체도 공장 가동이 멈추면서 일감이 사실상 끊겼다고 호소했다. 타이어를 운송하는 화물차량 관계자는 “앞으로 한 달 정도면 2공장 참고 물량이 모두 소진되면서 일감이 없다”며 “곡성공장에서 배송하거나 광주 다른 사업장 업

체의 일감을 나눠 일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노조는 19일부터 국회와 정부를 향해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정상화를 위한 1인 선전전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광준 기자

‘중동 전쟁’ 광주·전남 경제 비상 “유가상승·원자재 수급차질 우려”

최근 중동지역에서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면서 국제 유가 상승과 원자재 수급 차질에 대한 우려감으로 광주·전남 경제계에 비상이 걸렸다. 18일 광주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이스라엘-이란 전쟁의 장기화로 국제 유가는 단기간에 7~10% 이상 급등하는 등 원유 시장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다. 중동 지역은 세계 원유의 상당 부분을 공급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원유 수입의 70% 이상을 중동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가 상승은 지역 내 에너지 비용과 생산 단가를 가파르게 끌어올려 지역 제조업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 중동 해역의 긴장 고조와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은 해상 운송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의 약 20%가 통과하는 전략적 요충지로 봉쇄 시 대체 항로가 없어 원자재 공급망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로 인해 운임 상승, 물류비 증가, 수입 원자재의 공급 불안정이 발생할 경우 우리지역 기업들의 생산 차질과 비용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이번 전쟁으로 인한 국제 유

가의 급등과 해상운송의 제약은 지역 제조업체와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제조업체의 상당수는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실적 저하 등 피해를 경험하고 있으며 에너지·원자재 조달비 증가와 원자재 수급 문제로 인한 생산 차질을 호소하고 있다.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해상운송 차질 등은 지역 주요 산업의 경쟁력 약화와 지역경제 전반의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 광주경총은 “정부와 광주광역시 등 관계 당국에서는 이스라엘-이란 전쟁으로 인한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가격 급등, 해상운송 제약 등으로 인한 지역경제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총동원해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양진석 광주경총 회장은 “이번 위기 또한 관계기관, 기업, 시민 모두가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아 슬기롭게 헤쳐 나간다면 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역경제가 재도약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며 “각자의 위치에 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해 광주가 이 어려움을 딛고 다시 한번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이승원 기자

“비상계엄 광장 목소리, 차별 철폐 사회대개혁으로”

광주 시민사회

광주 시민·노동·여성단체가 12·3비상계엄 이후 정국 수습 과정에서 모인 각계 각층의 주장을 담아 차별 철폐를 필두로 한 사회대개혁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 지역 10개 단체로 구성된 ‘2025 차별철폐 광주대행진 추진단’은 18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 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하지만 현실은 차별투성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진단은 “12·3비상계엄 이후 사회대개혁을 촉구해온 광장에서는 정경교체를 넘어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며 “가혹해지는 차별과 불평등 앞에 다름을 이유로 행해지는 모든 배제와 혐오, 차별에 저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추진단은 광장의 뜻을 담아 노동존중 헌법개정에 앞장서 한국 사회의 비정규직, 불안정노동 철폐를 위해 앞장서겠다”며 “여성혐오 정책에 저항하며, 성평등 정책 실현을 위해 행동할 것

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또 “헌법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서고,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에 맞설 것”이라며 “장애인과 이주민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행동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회의 다양성을 포괄하지 못하고 정치혐오를 부추기는 기득권 양당정치를 타파하고 정치 다양성을 위해 행동해야 한다”면서 “광주에서 ‘민주당이 아닌 선택’은 민주주의의 반댓말이 아니다. 거

대 양당 중심의 한국 정치를 바꾸는 변곡점을 만들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그러면서 “모든 차별을 철폐하는 연대의 힘으로 평등의 걸음을 멈추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추진단은 사회 속 차별 내용이 담긴 합판을 부수는 퍼포먼스를 펼치며 회견을 마쳤다. 추진단은 이날 오후 6시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차별철폐 문화제를 열어 대시민 선전 등에 나선다. /박도일 기자

제28회 무안꽃축제

THE 28TH MUAN LOTUS FESTIVAL

여름이 커지는 순간, 무안에서
무안 SUM : ON

6.26. - 6.29. 무안군 회산백련지

주최 무안군 주관 무안군축제추진위원회